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3)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1년 6월 2일) 美, 드라이브 스루 목장투어 실시 - 차로 이동하며 목장투어 진행, 참가 기념품으로 유제품 꾸러미 제공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위스콘신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 목장투어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위스콘신주 낙농가협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낙농업에 대해 알려주고 유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오는 6월 12일 사상 첫 드라이브 스루 목장투어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젖소와 송아지 사육공간과 착유실을 둘러보고, 목장이 환경 보호를 위해 토양과 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리게임을 실시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차량에게 40달러 약 (4만 5천원 상당)의 유제품 꾸러미도 전달될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美, 드라이브 스루 목장투어 실시

- 차로 이동하며 목장투어 진행, 참가 기념품으로 유제품 꾸러미 제공’, 「글로벌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12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낙농뉴스」 2021년 6월 2일자

- 원문출처:washingtoncountyinsider.com, 5월 29일자

2. (2021년 6월 8일) 코로나 19 감염 우려 등으로 美 낙농업계 인력난 비상, 최저 임금 인상, 초과근무 수당 법률 개정 등으로 고용주 부담 커져

미국 낙농업계가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데일리 낙농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보육 시설 부족,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보다 일자리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낙농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목장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인력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사료 가격, 장비 설치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며 낙농업계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임금 상승과 복리 후생 확대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낙농업계 인력난 비상 - 최저 임금 인상, 초과근무 수당 법률 개정 등으로 고용주 부담 커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8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6월 3일자

3. (2021년 6월 25일) 美 낙농업계, 식량안보 지원 나서 - 버몬트주 낙농가, 지역 초등학교에 보조금 지원

금년 미국에서 어린이 만 1,300명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이 식량난에 시달리며, 식량안보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낙농업계가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3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루 영양의 상당 부분을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면수업이 불가해 집에 머무는 학생들의 식량안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버몬트주 낙농가들이 지역 초등학교에 2,450달러(약 2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0/2021학년도 동안 대부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영양을 보충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美 낙농업계, 식량안보 지원 나서 - 버몬트주 낙농가, 지역 초등학교에 보조금 지원’,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25일자

- 원문출처: vermontbiz.com, 6월 23일자

4. (2021년 6월 28일) 美 소비자, 식품 서비스업 운영 재개에도 사재기 지속-홈쿠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정내 식료품 비축 계속돼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식품 서비스업의 운영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식료품점 및 레스토랑에서 사용된 총 지출액이 1,392억 달러(약 157조 1,3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폐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5월에 비해 25.7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과 5월 모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식품에 10%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레스토랑 매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와 동일하게 식료품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종합 유통업체 크로거(Kroger)에 따르면, 소비자의 92%가 여전히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식료품 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소비자, 식품 서비스업 운영 재개에도 사재기 지속 - 홈쿠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정내 식료품 비축 계속돼’,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28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6월 23일자

II. 남미

[아르헨티나]

1. (2021년 6월 2일) 아르헨티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수출 달러 필요, 2020/21년 수확이 끝나면서 대두 2,000만 톤 판매)

아르헨티나 농업부는 아르헨티나 농부들이 지난주 60만 6천 톤에 대한 거래가 등록된 후 2020/21 시즌부터 2천만 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배자들이 이번 시즌 수확을 마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대두 판매는 2,380만 톤의 판매량을 등록했던 지난 시즌보다 뒤쳐지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에 따르면, 대두 수확량을 4,350만 톤으로 예상했다. 2021/22 시즌 대두 판매량은 61만 6,1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날에 등록된 양보다 거의 두 배 많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수출 달러가 필요하다. 농업부는 수확 중인 2020/21 옥수수과 관련해 총 2,860만 톤의 판매가 등록되어 작년 같은 날짜에 등록된 것보다 320만 톤이 많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growers sell 20 mln tonnes of soy in 2020/21 as harvesting end(아르헨티나 재배자들은 2020/21년 수확이 끝나면서 대두 2,000만 톤 판매),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6월 2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98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Ⅲ. 유럽

[EU]

1. (2021년 3월 25일) BREXIT와 마주하는 영국 식육업계 상황~AHDB 웨비나로부터~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3월 8일 EU 이탈: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인 기회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BREXIT) 영향 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또한 BREXIT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말에 종료되며 영국 및 EU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FTA)으로서 원산지 규칙 충족을 요건으로 전 품목에서 관세 철폐, 관세 할당이 없는 합의가 이루어진 한편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위생식품검역(PS) 조치로서 단계적인 시스템 변경, 위생증명서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웨비나는 AHDB 시장분석 부문 디렉터인 필 빅넬(Phil Bicknell) 씨가 진행했고, 영국 농식품 업계 전문가들이 각각의 부문, 입장에서 BREXIT의 영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모두, 빅넬씨는 영국이 놓여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수십 년에 걸쳐 양호한 무역 상대였던 EU와의 관계가, BREXIT에 의해서 식품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체에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때문에, 이번과 같은 기회를 마련하고, 실제로 그러한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업계의 전문가에게, 어떠한 대응 상황에 있는지 묻는 기회는 유용하다고 했다.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근거로 하고, BREXIT가 영국의 농업·식품 업계에는 어떠한 기회를 가져올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웨비나 중, 식육업계로부터 유일한 강연자로서 출석한, 파머스·퍼스트 양생산자 조합(조합원 2700호) 디렉터인 마이크·굿딩(Mike Gooding)씨는, BREXIT 이행 기간 종료 직후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고 되돌아 보았다.

그는 이행기간 종료 후 를 정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있어도 그 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등 업계의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이행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방대한 서류 작업등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호소해 경합하는 뉴질랜드산 양고기가 그 사이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상도 언급했다.

한편, 최근에서는, 를 정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수출 사업자들이 서류 작성 작업등에는 익숙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과제는 남기면서도, 수개월에 걸쳐서 간신히 일정한 안정은 되찾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고했다. 과제로는 변경된 규칙 등의 대응에 자사 내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작업별로 요구되는 서류 작성, 서명 등의 서류 관련 추가 작업을 들었다. 이러한 작업의 추가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 검사관에 따라 다른 규칙들의 해석이 소비 기한이 있는 상품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국 등의 참가를 허용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동씨는 강연의 마지막에, BREXIT 이전의 무역 환경에까지 되돌리는 것을 요망해도, 현재도 5억 명의 소비자를 안는 EU와의 비즈니스 기회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그는, 다른 연사와의 좌담식 공개 토론 가운데, 정부에의 요망이라고 하는 의제에 대해,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호소했다. 향후 한층 더 강해질 업계의 지속 가능성등의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성과, 무역 교섭의 추진에 의해서 온 세계에 영국산 양고기가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업계에의 투자의 진전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6月号

2. (2021년 6월 28일) EU 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부문별 영향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생산의 감소는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생산, 노동 등 농산업 전반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생산액은 평균 2.9%씩 증가해왔으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4%가 감소하였다. 농가의 전체 소득은 2019년에 비해 7.9%가 감소한 71억 유로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농업 계절근로자는 약 1,00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유통, 원자재 공급 등이 느려져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식료품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카페 등의 폐쇄로 인해 유통 채널을 잃어, 오프라인 부문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더욱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유럽의 농업은 대체로 생산, 식품 가격, 무역 수준 등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를 크게 본 부문도 있었다.

와인의 경우 유럽연합 내 생산액은 5% 감소, 유럽연합 외부로의 수출은 2% 감소, 소고기는 식당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유럽 내 생산과 무역 모두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은 팬데믹 기간 소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생산량이 12% 감소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세계 설탕 가격 변화는 유럽의 설탕 수출액의 감소(-44%)를 야기하였다.

장식용 식물은 1차 감염 시기에 약 41.2억 유로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 부문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농업 부문별 SWOT 분석〉

부문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육류	돼지, 가금류 등의 생산량, 무역량 소비가 증가. 가격이 안정적임.	소고기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감소하였고, 사료 가격이 증가함.	2021년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축살균으로 인한 수입 제한과 채식 선호 현상이 예상됨.
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이고 우유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크림과 요거트 수출이 증가함.	식당의 폐쇄로 인하여 치즈의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며, 성적이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함.	태이크아웃과 온라인 판매의 증가가 감소한 유제품 판매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음.	무유를 재장하는 행위가 이전의 소비 형태로 되돌아가, 우유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계란	생산량과 가격이 현대믹 발생 초기에는 증가함.	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농가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식당 폐쇄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였으며, EC 시장 지원을 받지 못함.	단백질 공급을 위한 소비가 상승할 수 있음.	조류독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설탕 및 예편물	설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했으며, 면료 예편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득제를 생산하였음.	설탕 수출이 감소하였고, 국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폐쇄로 인하여 소비량이 감소함.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의존도가 감소할 것임.	설탕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외인	유럽연합 내 거래가 많아졌으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짐.	생산량, 소비량, 유럽 연합 외부로의 수출량 모두 감소함. 장기화된 폐쇄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자금이 필요함.	유럽연합과 지역 99년에 대한 높은 수요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가 예상됨.	수출 의존성이 높으며, 생산자 마진이 낮고, 소비량 감소가 예측됨.
과일 및 채소	수출량과 유럽연합 내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적절한 지원정책이 투입됨.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감소함.	과일과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환경이 불리해지며, 산선도 유지가 어려움.
감자	생산량과 현대믹 초기에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수출량, 소비량, 가격이 함께 감소함.	비유럽연합 시장에 대응한 유럽연합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식품 서비스 재년이 폐쇄됨에 따라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
장식용 식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유럽 내 거래가 증가함.	수출액, 가격, 소비가 모두 감소하였고, 30만국 사이에 제한적이고 불명확한 지원 조치가 시행됨.	집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무역을 있어서 고통 의존성이 높으며, 위기 상황에서 비필재로 여겨지고 있음.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부문별 영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5, 2021년 6월 28일

- 원문출처: 유럽의회 조사처, “European agriculture: a sector-based analysis of food systems and market resilience” (2021.5.28.)

[영국]

1. (2021년 3월 25일자) BREXIT와 마주하는 영국 식육업계의 상황~AHDB 직원 인터뷰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도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양고기 뿐만 아니라 영국산 육류 전반의 COVID-19 및 BREXIT의 영향에 대해 영국 농업원에 개발공사(AHDB)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육류 수출부문 책임자인 조너선 에클리(Jonathan Eckley) 씨의 원격조회를 통해 들었다.

동 씨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BREXIT의 혼란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재차 EU는 계속해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기적

으로 보면, 경제성장등에 의한 아시아 시장의 성장 및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것에 대한 전략이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COVID-19는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영국 식육업계는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2020년 연간 66만 톤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들 수출액은 15억 파운드(2,340억 엔, 2조 3,575억 원: 1파운드=156엔=1571.7원) 이상에 이르는 등 견고하게 추이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육육 부문 수출의 중요성은 수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EU 역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각 부문의 수출환경이 조성돼 실제로 아시아 북미 등 많은 시장에 수출물량을 증가시키는 등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HDB는 3월 12일 홈페이지 상에서 BREXIT 이행기간 종료 후 첫 달이 된 2021년 1월의 무역에 대해 COVID-19 및 BREXIT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다. 농산품에서는 특히 육류 부문이 큰 영향을 받아 EU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월 1억 3,000만 파운드(202억 8,000만 엔, 2,043억 2천만 원)에서 5,300만 파운드(83억 6,800만 엔, 832억 9,918만 원)로 크게 줄어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이행기간의 종료를 내다보고 2020년 중에 재고를 늘린 사업자도 많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들 통계에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에클리 씨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2020년은 영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에게 있어 수출 해금 후 첫 해의 대일 거래가 되었지만(영국산 쇠고기는 2019년 1월 9일에 23년 만에 일본에 대한 수출이 해금되었다), 수출량은 1,600톤으로 순조롭게 추이했다고 말했다.

영국의 생산자와 식육 사업자는 고품질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농장으로부터 공급망 전체를 통한 높은 생산기준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에클리 씨 자신 및 AHDB 수출 팀은 이들 식육을 익사이팅하고 매력적인 일본 시장에 계속 전달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싶어 했다. 또, 농업자를 지지하는 AHDB로서 영일간의 강화된 파트너십이 향후에도 계속해 갈 것에 큰 기대를 건다고 했다.

또한 영·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EPA)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EPA는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영국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국산 식육의 일본 수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삭감된다.

에클리씨는 마지막으로, 인터뷰시 에치바의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되고 있던 국제 식품·음료전(FOODEX JAPAN 2021)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다. 예년에는 영국에서 AHDB나 많은 식육 수출기업 등이 이 행사에 출전했지만 올해는 주일 영국대사관만이 영국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COVID-19 상황이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돼 다시 일본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6月号

IV. 아시아

[일본]

1. (2021년 6월 21일) 일본의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1(1)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6월 11일,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1’ 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전략에서는 스마트 농림수산업, 환경, 바이오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 등을 기반으로 농림수산 분야의 혁신을 창출하여 일본의 식품과 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수립한 것이다.

■ 일본 현황 및 해외 동향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감소하고 가정식 및 간편식·테이크아웃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 및 건강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기존에 전입 초과를 이어오던 인구 추이가 2020년 4월 긴급사태 선언 이후 전출 초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 실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 폭우, 고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100년까지 세계 평균 지상 기온이 0.3~4.8℃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안정적 공급에 대한 불안이 우려된다.

EU, 미국 등도 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전략(farm-to-fork, 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등)을 국제 규율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흐름(Horizon Europe, USDA Science Blueprint 등)도 보인다.

농업 분야의 환경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 비료 이용, 품종 개발, 푸드테크(식물 유래 단백질, 곤충 테크놀로지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화>

유럽에서는 농기계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업 간 공유 및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업인은 다양한 브랜드 농기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노동력 절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데이터기반(WAGRI) 등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

용하여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스마트화 추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력추적 데이터를 공유하여 고급사슬의 품질관리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판기 인터페이스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 산업을 추진 중이고, 물류까지 무인화한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분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식품을 통한 건강 관리>

유럽에서는 질병예방 등을 위한 건강식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 및 식재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농산물·식품의 효능이 밝혀져 이를 활용한 건강 도시락 등이 개발되고 있다.

<농촌발(發) 이노베이션과 신진 연구자 등 육성>

유럽에서는 대학 내 기금을 활용한 개발 자금지원인 갭펀드(GAP FUND)로 기술이전 및 대학발 벤처 창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학발 벤처기업 수가 최근에 증가 경향을 보이나 아직은 유럽 대비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일본에서 Z세대 등 젊은 층이 지속 가능한 식량·농업 생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Z 세대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전략 동향>

일본 정부는 Society5.0 관점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행복이 실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책정·추진하고,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수립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1(1)」,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4, 2021년 6월 20일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1” (2021.6.11.)
(https://www.affrc.maff.go.jp/docs/press/210611_24.htm)

[중국]

1. (2021년 6월 7일) 中,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크게 늘어 - 일평균 유제품 섭취량 237ml에서 260ml까지 증가...주식으로 자리매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제품이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유제품협회(CDIA)와 프리슬랜드 캄피나 중국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며 소비량이 급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4,200명의 응답자 중 30.7%가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섭취를 늘렸고, 그 중 11.1%는 액상유, 분유 및 치즈 외에도, 유제품 스낵 및 발효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일평균 유제품 섭취량이 237ml이었던 것에 반해, 금년에는 260ml까지 늘어났고,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며 아침식사 대용과 RTD(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리슬랜드 캄피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유제품을 통한 더 나은 영양소 공급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해 나갈 것 이라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中,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크게 늘어 - 일평균 유제품 섭취량 237ml에서 260ml까지 증가...주식으로 자리매김’,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7일자
- 원문출처: epaper.chinadaily.com.cn, 6월 4일자

[인도]

1. (2021년 5월 27일) 인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유 폐기 발생 - 낙농가는 물론 가축 피해 막심...정부 당국에 대책마련 촉구

인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유가 남아 폐기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감염 우려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가공장 또한 폐쇄되면서 낙농가들은 갈 곳 잃은 원유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낙농가는 유가공장 폐쇄로 한 달 넘게 전체 원유 생산량의 40%만 판매하는 등 낙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낙농가의 생계뿐만 아니라, 사료를 구입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 젖소들도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공장도 폐쇄 조치로 인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우유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원유 점유량을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농가들은 남아도는 원유의 점유와 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 인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유 폐기 발생 - 낙농가는 물론 가축 피해 막심...정부 당국에 대책마련 촉구’,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5월 27일자

- 원문출처: news18.com, 5월 25일자

2. (2021년 6월 22일) 인도,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으로 영양실조 어린이 위해 무료 분유 공급 실시, 6월부터 7월까지 약 566만 명 학생 대상 매일 500g의 분유 공급 예정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어린이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분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여성아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약 44만 7천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그 중 7,751명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 폐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우유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공급한데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약 56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500g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정책동향] 인도, 영양실조 어린이 위해 무료 분유 공급 실시 - 6월부터 7월까지 약 566만명 학생 대상 매일 500g의 분유 공급 예정」,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22일자

- 원문출처: thenewsminute.com, 6월 20일자

[베트남]

1. (2021년 6월 4일) 포스트 코로나, 주목해야 할 베트남 물류산업 -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전자상거래 성장 등 코로나19 반사이익 누리는 물류산업 - 저온창고, 풀필먼트 시스템 확충 등 베트남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 -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교역의 회복세 또한 뚜렷하다. 이러한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공급체인망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그중,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인건비, 임대료 등)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산기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유럽연합, 영국과의 FTA 발효, RCEP 체결 등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며 향후 아세안 내FTA 허브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관점에서는 비대면 소비채널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제품의 Door to Door 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베트남

남 정부도 최근 물류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 및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도 베트남 물류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대되는 베트남 물류시장

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제조업 메카로 부상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역할이 베트남, 멕시코, 헝가리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며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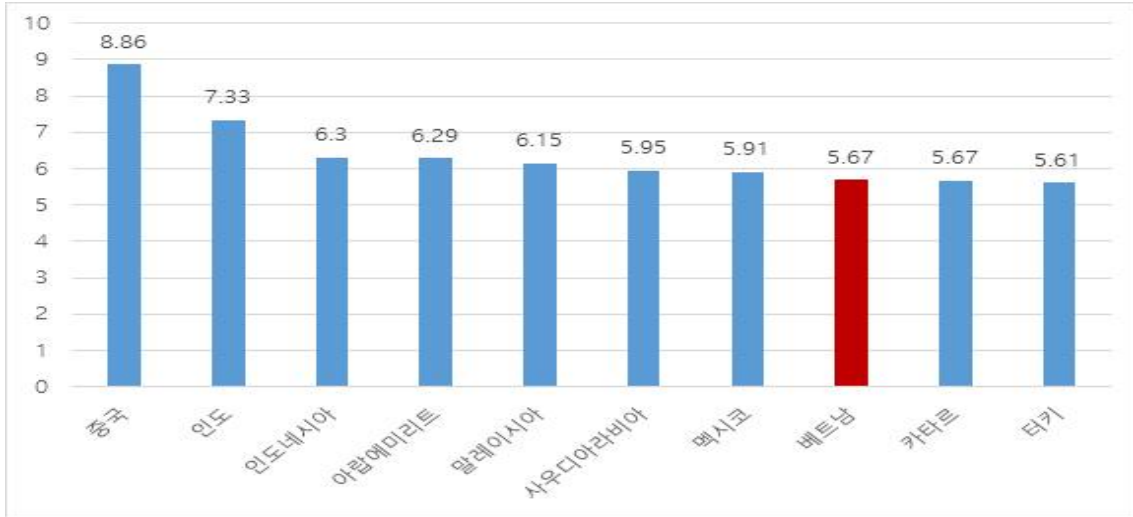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 보급과 글로벌 교역 회복세에 따라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춤했던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연초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그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애플의 협력사이자 세계 최대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폭스콘이 쩡닌성(Quang Ninh)에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준공했으며, 올해에도 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투자는 파트너사인 애플이 중국 생산시설 중 일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텔 역시 올 초 베트남에 약 4억7500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으며,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파나소닉 역시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세탁기 등의 조립시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에 제조업 진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물류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성장성도 다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어질리티(Agility)가 발표한 신흥국 물류시장지수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5.67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10대 신흥 물류시장에 진입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세빌스(Savills)의 존 캠벨(Jonh Campbell) 베트남 산업 서비스 담당자는 “세계적인 물류부동산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을 유망시장으로 평가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는 호주의 물류부동산 기업인 로고스(Logos)가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싱가포르의 GLP사 역시 15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내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공동 운영하는 아시아성장펀드가 약 3700만 달러를 투자해 북부의 물류 센터인 로지스밸리를 인수한 바 있다. 부동산 컨설팅사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의 스테판 와이엇(Stephen Wyatt) 베트남 책임자에 따르면 여전히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물류시설이 부족한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21년 10대 신흥국 시장 물류 인덱스>



자료: Agility

베트남 내에서도 다낭시는 북부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를 무기로 베트남 내에서 확장 혹은 중국에서 이전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원재료 가공 후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다낭시와 중부지역의 소비시장 잠재력을 보고 진출을 꾀하는 소비재 기업들도 있으며, 이들의 재고를 보관할 창고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낭시의 경우에는 하노이와 호찌민과 같이 창고 보관에서 배송까지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들이 많지 않으며, 현지 기업 중에도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다.

② 메가 FTA 체결로 인한 경제영토 확장

베트남의 최근 5년간 대외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수출액이 6% 이상 꾸준히 성장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2019년 대비 5.3%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역액은 5.1%, 수출은 6.8% 증가를 기록하며 2016년 이래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4월까지의 수출과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8% 증가했다.

베트남 수출은 향후 더욱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영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작년 11월에는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이 참가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서명되면서 베트남은 총 15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그중 14개의 FTA가 발효됐다. 특히 RCEP의 경우에는 참가국들의 GDP가 세계의 약 27%,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에 발효 시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선호하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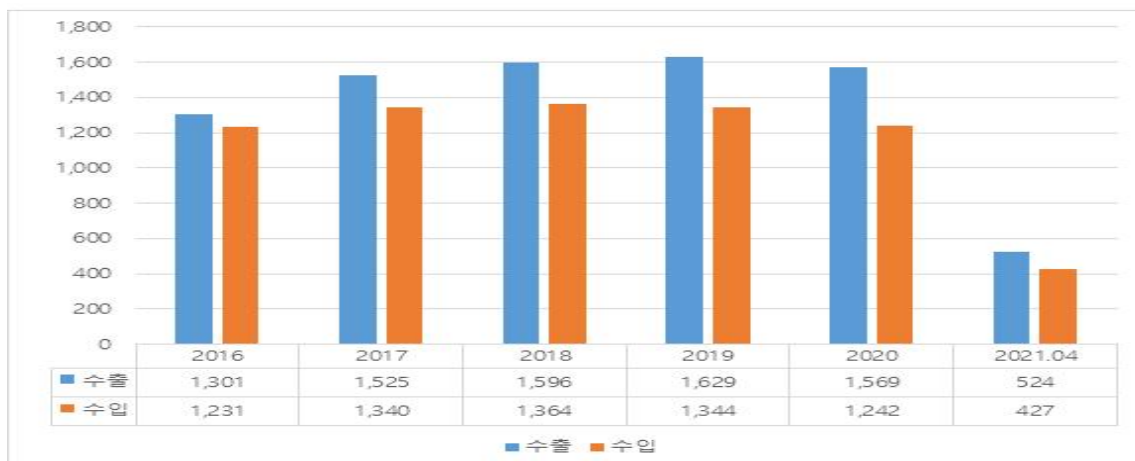
이러한 전망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항만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최대 8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글로벌 항만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응우옌 닛(Nguyen Nhat) 교통부 차관은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수요와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트남 항만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항만 규모를 8배 이상 키워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물동량이 4% 증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항만 총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올해 항만물류산업 역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의 까이몹-티바이(Cai Mep-Thi Vai)항 확장과 중부 중심도시 다낭의 리엔 찌우(Lien Chieu)항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낭시의 경우에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횡단하는 동서경제회랑(EWEC, East West Economic Corridor)의 관문으로서 향후 베트남 중부지역 및 인근 국가의 수출항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낭은 현재 띠엔 사(Tien Sa)항을 통해서 연간 86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리 화물이 1,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신항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다낭시의 수출입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에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4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다낭시 교역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③ 전자상거래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대비 18% 성장, 시장규모 약 1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 주최로 열린 베트남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 2021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연평균 29%에 달할 것이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약

5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우옌 빙 밉(Nguyen Vinh Minh) VECOM 이사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이끄는 도시는 하노이와 호찌민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매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VECOM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답했으며,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수익은 2010년 2600만 달러에서 2020년 8억2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의 힘입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기업 5곳이 아세안 10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은 데이터의 전송량을 나타내는 트래픽 기준으로 아세안 내 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태국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을 협의 중이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전자결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2025년까지 인구의 55%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낭시 역시 지난 2018년 Danangtrade(danangtrade.com.vn)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제품에서부터 인테리어, 유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다낭시에서 지난 2018년 개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자료: danangtrade.com.vn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물류산업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에 따라 물류시장 역시 30~4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 인근에 대규모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노후화된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오던 전자상거래 기

업들이 이제는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대규모 물류창고를 통해 비용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작년 3분기에만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5~10%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자상거래 기업들 간 총성 없는 배송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배송 품목 또한 패션, 전자제품, 위생용품 등에서 신선식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온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사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 베트남 지부는 저온 창고 시장을 유망 신규 투자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과 신선식품, 홈밀키트 등 시장이 성장하면서 향후 저온 창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중심으로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과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1위인 쇼피(Shopee)가 호찌민시 인근에 3번째 물류창고를 건설 완료했으며, 티키(Tiki)와 라자다(Lazada) 역시 신규 물류센터 건설, 배송 시스템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 국영 우편배송 서비스 기업인 VNPost는 다낭시에 5헥타르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건설했다. VNPost는 지난 2018년 전자상거래 사이트 Postmart.vn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우편 네트워크 활용과 IT 및 디지털화를 통해 매년 20% 매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레 민 쩡(Le Minh Trung)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VNPost의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설이 다낭시의 디지털 포메이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VNPost에서 다낭시의 확장 호아칸 산업단지에 건설한 물류센터 전경>



자료: Viet Nam News

시사점

최근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국제 물류지수(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종합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4위와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순위이며, 아세안(ASEAN)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다만, 세부 항목 중 물류 인프라 부문에서는 47위,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49위를 기록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 시 입주 산업단지과 항만, 공항, 철도역과의 거리, 주요 물류 인프라까지의 고속도로 이용 가능 여부 등 물류 인프라 관련 사항은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조 가공 수출기업들이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은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서 물류 인프라는 생산 원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정부도 인지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남북 종단 고속도로는 작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형태로 변경돼 진행 중이며, 항만 인프라 개발 역시 북부(락후엔), 중부(출라이), 남부(롱 안)의 주요 항구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역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BMI Research는 2020년에서 2029년까지 베트남 물류 인프라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을 5.8%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높은 물류비 역시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베트남 물류사업협회(VLBA, Vietnam Logistics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GDP의 20%로 세계 평균인 1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률과 배송 실패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가격 경쟁력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과다경쟁, 배송 지연과 상품 누락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약 5억3400만 달러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 효율적인 현지 물류 네트워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현지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KOTRA는 독자적인 물류거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현지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기반 마련, 적기 납품, 물류비 절감,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포스트 코로나, 주목해야 할 베트남 물류산업 -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전자상거래 성장 등 코로나19 반사이익 누리는 물류

- 산업 - 저온창고, 풀필먼트 시스템 확충 등 베트남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
 - ' , 베트남 다낭무역관 최준환, 2021년 6월 3일자 게재
- 원문자료: Viet Nam News, VNEXPRESS, Vietnam Investment Review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다낭 무역관 종합

V. 글로벌

1.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바꿨을까? 트위터링크나우페이스북 뜨는 산업·지는 산업… 희비 갈리는 업계, 자국 우선주의 강화… 비관세장벽도 변화, 핵심산업에선 ‘공급망 쟁탈전’ 벌어지기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해 산업과 무역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팬데믹 타격으로 세계 수출시장이 최악의 타격을 입은 지 약 1년여가이 지난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핀다.

● 각광받는 ‘비대면’ 경제, 그늘엔 ‘대면’ 관련 산업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정부가 락다운 등 외출 규제를 가하고 감염 위험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콕’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홈케어·간편식은 물론 재택근무 인프라를 포함한 IT 가전 수요도 크게 늘었다.

상품은 물론 서비스도 비대면 관련 수요가 증가했다. 화상회의·배달·대행·콘텐츠 이용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앱·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섰다.

코로나19가 대면 상거래를 어렵게 만들면서 거래 방식도 ‘비대면’이 선호됐다.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상거래의 확산이 이뤄지면서 아마존·티몰·라자다 등의 B2C 전자상거래는 물론 타오바오·이베이 등 C2C 전자상거래까지 다양한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이 팬데믹 동안 시장의 저변을 넓혔다.

수출 마케팅·판촉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홈쇼핑처럼 물건을 파는 형태의 ‘라이브커머스’ 상거래가 전대미문의 성황을 이뤘다. B2B 거래에서도 수출기업들은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바이어를 찾고 온라인 전시상담회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수출 상담을 이어갔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 기회가 줄면서 남을 만날 때 착용하는 의복과 장신구 시장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세계의 섬유·의류·신발·모자류 등 패션·피복 산업은 기록적인 타격을 입었다. 올해 초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킨지는 전 세계 의류업체들의 의류 재

고 평가액은 약 1680~19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2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섬유·의류업체 H&M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오픈라인 매장의 영업중단이 신규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섬유·의류산업에 국가 경제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 올해 초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 및 수출업자 협회가 50개 공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시즌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전의 락다운에 이어 1월의 외출 규제가 영향을 미쳐 평소보다 신규주문이 30% 줄었다.

정성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실장은 “패션 제품은 재량적인 소비재 특성을 가져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맥킨지에 의하면 전 세계 의류, 패션, 럭셔리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2020년 1월 초부터 3월 24일 사이에 약 40%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가파른 하락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규제·인증 분야도 코로나19 애로 덮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던 보호무역주의에도 영향을 줬다. 자국 우선주의 풍조는 더 강화된 반면, 일부 의료품과 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수출에서 해당 품목들의 선전이 엿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간한 ‘표준, 규제 및 코로나19’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관해 제출한 통보문은 171건에 달하며, 이 중 TBT가 106건이고 SPS가 65건이다. 브라질·쿠웨이트·필리핀 등 신흥국들이 가장 많은 TBT 및 SPS 통보문을 제출한 국가들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관련 TBT와 SPS의 유형은 인증절차 간소화·의료용품 안전보장·식품 기술규제 완화·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의 국제무역 제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적지 않은 조치들이 의료품과 식품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채용됐다.

인증절차 간소화의 경우, 수입 의료용품에 대한 인증·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임시 조치가 나왔다.

브라질은 PPE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승인 요구사항을 완화했다. 캐나다는 손 소독제에 대한 라벨 규정을 완화했다. 스위스는 의약품과 소독약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과 의료기기 및 PPE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해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임시 절차를 통보했다. 태국은 PPE,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한 등록 승인을 일시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 17개 WTO 회원국이 사본 및 스캔 인증서 허용을 발표했다.

의료용품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품질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예컨대 쿠웨이트는 호흡기, 소독제, 의료기기와 PPE를 포함하는 일련의 새로운 표준을 채택했으며, 브라질은 코로나19 제외진단에 사용되는 제품에 수입절차를 도입했다.

그밖에 나미비아와 자메이카는 손 세정제, 우간다의 비의료용 안면 마스크와 기타 의료장비, 페루는 지역사회 사용을 위한 마스크 요구사항을 채택해 필수의료품의 국내생산을

가능케 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인증제도 이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새로운 수출입 애로로 부상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추세에 따라 약 17개국의 시험·인증 업무와 관련된 수출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리스크는 신제품의 신규 인증과 기존 제품의 인증 갱신이 정상화되더라도 인증 소요 기간인 3~4개월 동안 판매중단 또는 출시지연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지 지정시험소 성적서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됐다.

● 공급망도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편으로는 가치사슬의 지역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대체되는 추세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산업 우선주의가 역내 공급망 강화를 부추기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망 마비도 각국에 역내 주요 제품 생산시설 확보를 서두르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 품목의 공급망 관련 조사에 나선 것도 공급망에서 역내 자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제로 대만의 TSMC가 각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증산 압박을 받고, 미국 내 공급망 신설 압박을 받아온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지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미래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의 경제권에 유치하려는 시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필수약품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요구가 확산하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EU 공통관심 주요 프로젝트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61억 유로, 고성능 반도체 자체 조달에 17.5억 유로를 들일 계획이다.

중국이 중간재 공급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홍색공급망’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세계경제포커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수요에서 중·저위기술 중간재 비중이 완만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쌍순환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아세아 국가들에 대한 GVC 전방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국 내 중간재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중국 수입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이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코로나19,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바꿨을까?트위터링크나우페이스북 뜨는 산업·지는 산업… 희비 갈리는 업계’, 2021년 6월 3일자

2. (2021년 6월 4일) 치솟는 식량가격...각국 밥상물가 초비상,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127.1로 10년만에 최고치, 브라질 가뭄·中수요 영향, 대두 63%, 밀값 30%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져가는 가운데 세계 식량 물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가운데 높은 식탁 물가가 서민들 어깨를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일(현지시간)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7% 오른 127.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수 역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식량가격지수는 곡물과 육류, 유제품 등 국제 거래 가격으로 산출되며 식량 전체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FAO는 앞서 120.9로 발표한 4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를 121.3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월 대비로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다. 2007년 1월~2008년 3월 15개월 연속 오른 이후 두 번째로 긴 장기 상승세다.

여러 식량 중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류가 전년 동기 대비 36.6%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FAO는 브라질의 공급이 중국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옥수수과 대두 생산이 많이 줄었다. 바이오디젤 수요가 오르면서 옥수수가 식품이 아닌 연료용으로 많이 소비된다는 점도 가격 상승에 한 몫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옥수수는 1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두와 밀 가격도 각각 63%, 30% 올랐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압둘레자 압바시안 FAO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외식이 늘면 곡물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건비와 운송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도 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네슬레, 코카콜라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은 이미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다. FAO에 따르면 식료품 항목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9년 4.6% 올랐고, 지난해 6.3% 더 뛰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서다.

미국 대형 식품 업체 타이슨푸즈는 물류, 포장, 노동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도 15%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금융 정보 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지난해 0.7%에 불과했던 미국 소비자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률이 올해 6.1%로 급등했다.

남미(21%), 아프리카와 남아시아(12%), 오세아니아(8%) 등에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는 식품 물가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인 23%를 기록했다. 레바논은 경제 문제로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지난해 식품 물가 상승률이 400%에 달했다. 시리아와 수단도 물가 상승률이 200%가 넘는다.

(출처) 매일경제, ‘치솟는 식량가격…각국 밥상물가 초비상,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127.1로 10년만에 최고치, 브라질 가뭄·중수요 영향, 대두 63%, 밀값 30% 급등’ 2021년 6월 4일자

- 원문 출처: 네이버 블로그 장구벌레, https://blog.naver.com/wnssus_/222385989085

3. (2021년 6월 7일) 코로나19 동향, 2020 OECD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

<개요>

OECD는 제138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를 개최하여 2020년 OECD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Risks that matter 2020: The long reach of COVID-19)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회원국 국민들의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위험(Social and economic risks)의 수준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여 보다 나은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조사는 25개 회원국의 25,000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위기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회원국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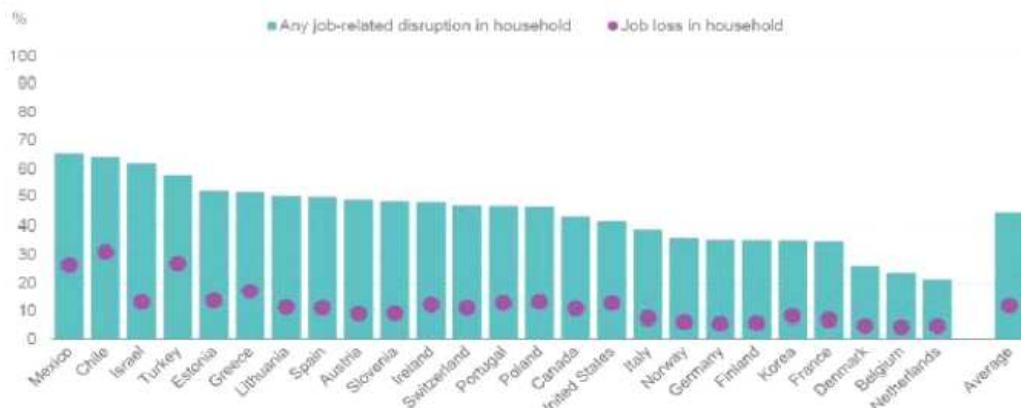
<주요 내용>

2020년 사회적 위험 서베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동안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7%)은 가구 내 실직, 고용안정조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삭감 등의 하나 이상의 일자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일자리 어려움은 청년층과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발적 이직 등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중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가정의 상당수(68%)는 세금 및 공과금 납입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Figure 1. Almost half of all households have suffered some form of job-related disruption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ing that either they or a member of their household have/has lost a job (including self-employment/own business), and percent reporting any form of job-related disruption in the household,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2020



코로나19 위기는 재정상태와 직업전망에 대한 걱정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실을 겪은 가정은 압도적 수준(81%)으로 향후 1~2년 내 가정의 재정적, 사회경제적 웰빙 수준에 대한 상당한 우려(very concerned)를 나타냈으며, 일자리 상실을 겪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도 과반수(65%)가 향후 몇 년간 가정의 전반적인 웰빙 수준의 우려를 나타냈다. 팬데믹 후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가구의 60%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 적절한 수준의 숙련 수준을 보유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인식에 비해 10%p 높은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가구는 더 나은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경우 정부의 정책 중 고용서비스(구직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자금지원 등)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 소득지원에 대한 더 나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대규모로 확장되었음에도 더 많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은 수준이었다.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의 시민들은 국민의 경제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고 사회보호제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더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응답자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국가별로는 GDP 수준이 높은 부유한 국가와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응답자들이 재정적 스트레스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 다양성이 보였다.

코로나19 위기가 미래에 대한 대중의 전망을 변화시키기는 했으나, 팬데믹 전과 유사한 부분도 나타났다. 2018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건강, 생계유지(making ends meet), 재정적 안정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노인에 대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팬데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초기 장기요양시설에서 많은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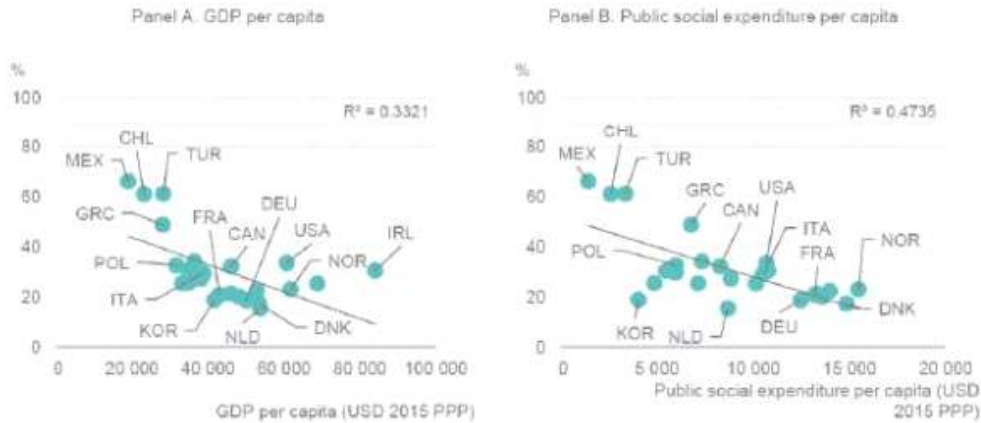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19 동향 2020 OECD 사회적위험 조사 결과’,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2, 2021년 6월 7일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20 OECD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Risks that matter 2020: The long reach of COVID-19)” (2021.5.21.), 제138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2021.5.)

4. (2021년 6월 10일)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 높아져, - 천연 재료 활용, 보존제나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 선호

Figure 6. Fewer respondents report suffering financial difficulties in richer countries and in countries that historically spent more on social programmes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ing experience of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 household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GDP per capita (USD 2 015 PPP), and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per capita (USD 2 015 PPP)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6월 7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아일랜드 식품회사인 케리그룹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점을 담은 새로운 통계 및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숙한 천연 재료를 활용하고 보존제나 첨가물을 사용되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의 20% 이상이 식품의 유통기한(expired by date)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식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섭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업체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식품안전]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 높아져- 천연 재료 활용, 보존제나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 선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10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6월 7일자

5. (2021년 6월 14일) 세계 유제품 수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라보뱅크 발표- 소매 및 식품서비스업 수요 확대...세계 원유생산량은 1% 증가 전망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라보뱅크가 발표한 2/4분기 세계낙농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로 인해 유제품 시장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소매 및 식품서비스업의 유제품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원유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착유두수 증가로 금년 1/4분기 원유생산량이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2020/21년 원유 생산시즌이 마무리된 뉴질랜드의 생산량도 지난 시즌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년 세계 7대 원유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년 하반기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제품 수요 및 수출입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세계 유제품 수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라보뱅크 발표- 소매 및 식품서비스업 수요 확대...세계 원유생산량은 1% 증가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14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6월 10일자

6. (2021년 6월 21일) 코로나19로 곡물 수출 제한되면서 오르기 시작한 곡물값 ‘미니 슈퍼 사이클’ ... “농산물상품 지금이 투자적기“-카길 등 “최대 50년간 상승흐름“, 옥수수 선물 1년새 2배나 뛰어, 中도 작년 113만이나 사들여, 코로나로 각국·기업 재고 쌓아 뒤, ETF로 개인도 수월하게 투자

곡물 시장이 ‘미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곡물가격이 향후 2~4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이 농산물 상품에 투자할 적기라는 조언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곡물 가격이 일제히 치솟았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두 배 오른 부셸당 3.29달러로 뛰었다. 대두는 65% 상승한 14.31달러, 밀은 33% 오른 6.54달러를 기록했다.

카길과 코프코, 비테라, 스킨라 등 세계적인 곡물·사료업체들은 지난주 열린 ‘FT 원자재 글로벌 서밋’에서 곡물 가격이 최대 50년간 상승흐름을 이어가는 ‘미니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곡물업체 비테라의 데이비드 매티스케 최고경영자(CEO)는 “분명 미니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면서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 가격이 향후 2~4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티스케 CEO는 “인구 및 부의 증가로 곡물소비가 늘어가는데다 바이오연료 소비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지난 5월에 전년동월대비 40% 급등했다. 월간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곡물 가격 급등은 지난해 하반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에 대응해 재고를 쌓아두면서 시작됐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치솟은 영향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13만t의 옥수수를 수입했다. 이 중 3분의 1이 미국산이었다.

그간 자급자족했던 중국이 수입을 대거 늘린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진 만큼 옥수수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치솟으면서 옥수수가 식품이 아닌 연료용으로 많이 소비된다는 점과 브라질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 생산이 급감한 것 역시 곡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금이 농산물 투자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농산물은 취급이 까다로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농산물에 투자하는 방법으론 △직접 선물거래 △농업 관련 기업 투자 △상장지수상품(ETP) 총 세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 관련 기업 투자 및 ETP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올해 농산물 ETF 수익률도 양호하다. 농산물 10종의 미국 내 가격을 따르는 '인베스코 DB 농산물 펀드(DBA)'는 올해 초 대비 15.18% 올랐다. 농산물뿐 아니라 농기계, 비료 생산, 곡물 종자 등 농기업에 투자하는 '반에크 벡터 농산업 ETF(MOO)'와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대두 선물에 투자하는 '투크리움 대두 ETF(SOYB)'는 같은 기간 19.30%, 20.08% 각각 상승했다. '투크리움 옥수수 ETF' 상승률은 30.23%에 달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곡물값 '미니 슈퍼사이클' ... "농산물상품 지금이 투자적기", 2021년 6월 21일자

- 원문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06211747207092>